

[2020. 01. 23. \[기사\]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던 멘토의 신입사원 특강 \(표표스스\)](#)

[2020. 01. 21. 타인의 명예훼손을 위한 역대 사형성 공개도박 제안](#)

[2020. 01. 19. 비아냥 발언](#)

[2020. 01. 18. 긴급 브리핑 : 소비자를 기만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2020. 01. 18. 김용석씨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발언](#)

[2020. 01. 18. 뽕독라이브 - 모욕](#)

[2020. 01. 18. 뽕독라이브 - 명예훼손](#)

[2020. 01. 18. 뽕독라이브 - 도서사기감시단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2020. 01. 16. 금전을 동원한 정치적인 압박 활동을 시사함](#)

[2020. 01. 15. 법인 회사의 온라인 계정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자료수집](#)

[2020. 01. 15.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없이 무단 수집](#)

[2020. 01. 11.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100억을 벌자. 대중강연에서 위법행위 선동 조장](#)

[2020. 01. 09. \[기사\] 베스트셀러 도서 사재기, 이렇게 이뤄진다 \(독서신문\)](#)

[2020. 01. 01. 신영준 본인이 오히려 도서사기감시단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발언](#)

2020. 01. 23. [기사]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던 멘토의 신입사원 특강 (표표人人)

https://ppss.kr/archives/210568?fbclid=IwAR2aaV-eZfl1VLbXEGEpcP_hphumRq92UQxesx5Ifv_ICEsCULvxU6aX_bw

표표人人

HOME 비즈니스 시사 문화 테크 생활 특집 전체글

Google 맞춤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던 멘토의 신입사원 특강

2020년 1월 23일 by 시민A

👍 좋아요 1.2천개 공유하기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공부’ 등 십여 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영준 씨가 1월 17일 천안시에 소재한 S사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수 차례 수강자들을 ‘병신’이나 ‘쓰레기’로 비하

“니네 이거 알아? 중관촌 아는 사람들 손들어봐 중관촌. 아 진짜 씨발 나라 말아먹을 교수 새끼들, 진짜 다 죽여야 돼. 아저씨 오늘 한 명 죽여도 돼, 가다가? 절권도 배워야겠어, 팡파팡팡... 니네 진짜 좆 됐어. 나는 진짜 20대 강연은 웬만하면 가거든. 존나 병신들만 있는 것 같아.

“니네 잘못은 아니야. 교수 새끼들을 죽여야 돼. 니네 엄마 아빠들 잘못이야. 니네를 쓰레기로 키운 건 다 부모 잘못이야. 니들 잘못은 없어. 니들이 뭘 알겠니? 다 얘기야 얘기, 니넨. 실리콘밸리 알아? 중관촌이 중국 실리콘밸리야. 투자 규모도 이미 실리콘밸리만큼 커. 니네 얼마나 병신 같은지 알겠지? 심각한 거야. 니네 공부 안 하면 좆 돼.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베 되고 메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병신이라고 싸워. 내가 볼 때는 다 병신인데.

2020. 01. 21. 타인의 명예훼손을 위한 억대 사행성 공개도박 제안



신박사 TV 1 day ago (edited)

가짜

가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자한 사기가 많죠. 원가 도와주겠다고 잘 되게 해주겠다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말뿐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돌씨는 컨설팅 &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에 엄청 집착합니다. 무가치한 일이지. 김용돌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신박사가 자신에게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2. 체인지 그라운드 체인 마케팅으로 독자를 기만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제가 제안한 1억 기부 내기를 받으면 됩니다. 도감단 분들의 정성스러운 서평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세요. 원하는 만큼의 서평을 올리게 해줄테니까 본인 책을 베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똑똑한 줄꾸러기분들이 왜 20위로 낮게 잡아주냐고 하셨는데 저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말은 거칠어도 언제나 실천은 부드럽습니다. (부끄부끄)

그리고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본인 얘기를 자주 도서사기감시단에서 얘기하나요? 개인 문제 아닌가요? 개인 문제와 도서사기감시단 일을 분리한다면서요. 몇몇한테 뭐가 그렇게 풀리세요?

증명을 할 때는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보여주는 게 증명입니다. 체인 마케팅을 그렇게 추구장창 주장하고 흑세무민 당한 인간들 시켜서 뭐 조사를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왜 인세도 없고 제가 나쁜 인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시나요?

이것에 응답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김용돌씨가 비즈니스 코칭 & 컨설팅하는 것이 고객 기만이라는 사실 발각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어차피 구현해볼 마음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코칭 및 컨설팅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김용돌씨를 시장에서 평가 받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대답하면서 고객이 판단할 일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 고객들이 김용돌씨 무지에 대해 돈을 주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보려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당사자인 김용돌씨는 자신이 그렇게도 주렸던 내용을 검증, 적용해보려는 마음이 없는데요. 정말 그런 실력과 마음으로 누군가에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사실 상 공동체에 큰 해악입니다.

제가 줄꾸러기를 현금지급기로 생각한대구요? 과연 작가 중에, 출판업을 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독자와 고객과 직접 소통을 많이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희 책이 독자를 기만하나요? 뉴욕타임즈 비평가, 빌게이츠도 우리 책을 추천했는데 그들도 병신인가요? 김용돌씨는 책도 안읽고 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대기중 캡쳐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한심했죠~

출판시장 교란을 말씀 하시는 분이 그것도 책을 써본 사람이 작가가 온라인 서점(교보, yes24) 댓글을 지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실화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분위기로 또 호도 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그때의 바보스러운 정말 또 새롭게 놀라웠습니다.

김용돌씨 1억 기부내기에 응하시는 것이 지금 그래도 최선의 카드입니다. 공정위 문제랑, 당신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선량한 일반인들을 무임금으로 착취해서 서평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체인마케팅 문제'는 다르잖아요? 도감단 사람들

김용돌씨 1억 기부내기에 응하시는 것이 지금 그래도 최선의 카드입니다. 공정위 문제랑, 당신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선량한 일반인들을 무임금으로 착취해서 서평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체인마케팅 문제'는 다르잖아요? 도감단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체인 마케팅이 확실하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서평잡이배에 타봐야죠. 원하면 도감단 사람들 서평 1000개도 올려드릴텐데 참치때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줄꾸러기에 대한 기만을 듣고, 몇몇 분들이 실명공개하고 김용돌씨 집단 소송으로 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접스럽게 핵심 질문하고 댄 소리 좀 그만하세요. 깔끔하게 할거다 안할거다 쉽잖아요? 저같은 어차피 망한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용돌씨에 대해 아직 뭐하나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없습니다.저는 그렇게 일을 못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1억 기부 내기에 대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Show less

348 COMMENT

Hide comments ^

SORT BY



갯순 23 hours ago

부모님이 옆에서 몇 년을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 내가, 흰 얼굴도 한번 본 적 있을까 말까한 분한테 세뇌 당해서 책을 사서 읽게 된다고... 말이나 되는 소릴해야지 =_= 누구 호구로 보나...

79



Fenix Talendar 1 day ago

김용돌이 누구예요?

36



구도윤 23 hours ago

*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신

김용돌님 용감하시네요.

좋은 기회 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고 끝까지 해 보세요.

Read more

30



돌이눈나 22 hours ago

박사님 극초기 부터 팔로우하던 대학원생입니다. 지독하게 우울하고 죽고싶을때 완공덕에 벗어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새로운 진로 위에 서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취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얼마나 교보를 많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으는지 기기로들 다 보 사주이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 기가 막히다로써 우울마 나니다. 하지만 기



눈나 22 hours ago

박사님 극초기 부터 팔로우하던 대학원생입니다. 지독하게 우울하고 죽고싶을때 완공덕에 벗어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새로운 진로 위에 서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취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얼마나 교보를 많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오셨는지 그기록들 다 본 산중인입니다. 이번 일을 보며 기가 막히다못해 웃음만 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되야 저런사람들 나와도 박사님이 좋은분이란걸 믿을테니까요. 말이 길었지만 신박사님 늘 응원하고 갑니다!!

Show less

30



Journey 22 hours ago

지금 우리는 미래없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줄구리기 모두 원원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줄구리기들이 세뇌당해서 서평쓰고 그걸 체인그라운드가 이용해먹는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 ㅋㅋㅋㅋ 저런 사람이 컨설팅을 한다고? 게다가 출판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책 홍보하는게 나쁜짓인지...? 쓰레기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 빌게이츠도 극찬하는 책과 일치하는 양서를 홍보하는 거라서 결국 회사와 독자 둘다 이득인것을...

16



Journey 22 hours ago

김용석 그분 정리랍시고 올려놓은거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근거=도감단 이렇게해놓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에 효..

14



하늘 23 hours ago

김용돌씨 정신 차리세요 전문가에게 어디 아마추어가 시비를 걸고 계시는지 세상을 살리고 싶어하는 리더에게 무슨 이런 막막을 하시는지요 사과하세요

9



김재현 22 hours ago

드래곤스톤... 잘못 걸렸네요 독배기 깨질 준비 되셨을란가~~~

8



앙규규 22 hours ago

가짜들은 되려 판 깔아주면 도망가기 바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는 것조차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키보드로만 지켜 내던 알량한 자존심도 무너질까 두렵기때문이지

8



하하하나 22 hours ago

아 진짜 갯순님 누굴 호구로 보나 핵사이다네요 ㅋㅋㅋ



하하하나 22 hours ago

아 진짜 갯순님 누굴 호구로 보나 핵사이다네요 ㅋㅋㅋ

7



천재 23 hours ago

용돌아 덤벼랏 !!

6



내 안에선한 천사 20 hours ago (edited)

8만명 vs 1천명.. 왜곡된 주장으로 줄구들을 호구로 만들어버리고...뒷감당 어쩔할런지..ㄷㄷ

6



fast slow 19 hours ago

저이번에 온라인 백독때 포커스앱 90분실천한 이후로 한번도 안봔먹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죄책감 같은게사라집니다. 물론 책임기만한다면 기억안남고 끝나겠지만 내일부터는 읽었던 책 서평에서 중요한 '요약'부터 할려구요

5



김침착 21 hours ago

김용돌 윈 튜보잡이에요??

5



Junyoung Yoo 22 hours ago

갯순님, 말씀 참 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4



Ji Won Choi 22 hours ago

ㅋㅋㅋㅋㅋㅋ 갯순님 댓글 넘 웃기면서 뼈때리네욤ㅋ

4



김도윤 21 hours ago

1억 내기가 아닌 기부 내기라니ㅠㅠ... 정말 의식이 어디를 향하는지..느껴집니다. 부디 1억 기부 내기 꼭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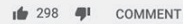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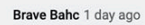
도르아벤타 13 hours ago

2

덧. 도감단 쫓무래기들 캡처 부탁!!!!
 Show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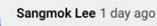
≡ SORT BY



소비자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속아넘어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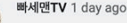
3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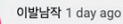
10



8



8



5



소비자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책 홍보 아무래도 자기 기준에서 다각도로 자신에게 필요한지, 살펴보고 구입합니다. 신 박사님을 좋아하지만, 제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건 안산책도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플러스 그거 예스24보니까 얼마팔리지도 않았던데 공유 1만번해줘도 힘들것같네요.



테가미 1 day ago

소비자는 개돼지가아니기 때문에, 책 홍보 아무래해도 자기 기준에서 다각도로 자신에게 필요한지, 살펴보고 구입합니다. 신박사님을 좋아하지만, 제 기준에서 아니다싶은건 안산책도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플러스 그거 예스24보니까 얼마팔리지도 않았던데 공유 1만번해줘도 힘들것같네요.

👍 4 🗨️



사우스포 1 day ago

김용돌이 헛바닥이 왜이렇게 길어? 후달리나?? 안후달리면 묻고 따블로가 아님 뒤지시던가

👍 4 🗨️



박채운 1 day ago

짜-질

👍 4 🗨️



강사모TV 1 day ago

이 정도 스케일을 그림을 그릴수 있는 분은 오직 신박사님 밖에 없네요 역시 혁오예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 3 🗨️



yunjung lee 23 hours ago

아 정말 열받아요 !!!! 줄꾸러기들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스마트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1%를 이탄식으로 폄하하니!!!!

👍 2 🗨️



김근우 GIL 1 day ago

용돌씨 신박사님과 우리 줄꾸러기를 기만하지 마세요

👍 2 🗨️



Sunshine yeonsoo choi 1 day ago

신박사님의 추진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존경합니다 박사님♡♡♡

👍 2 🗨️



나영찬 1 day ago

이 그림은 보면 볼 수록 어처구니없네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ㅋㅋㅋ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ㅋㅋㅋ

👍 2 🗨️



아젠다프리 1 day ago

묻고 더블로 가져!

👍 2 🗨️



최대훈 1 day ago

파워포인트 블루스 같은 책을 읽고 서평을 써는 사람은 고통스럽겠네요. 책을 읽고 통찰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서평을 쓰기 수월한데, 파워포인트 블루스를 읽고 과연 쓸거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 2 🗨️



H 1 day ago (edited)

베스트셀러 20위권 기준을 엄청 낮게 잡아주셨네

👍 2 🗨️



IST겸 1 day ago

스웍 ㅎㅎ

👍 2 🗨️



빠래맨 1 day ago (edited)

ㅋㅋㅋㅋ 풀리면 돼지시던가~~~

👍 2 🗨️



상민 객 1 day ago

이렇게 세게 나오기 있기 없기? 한판 가즈아~~후달리면 돼지던가!

👍 2 🗨️



복승민 1 day ago

왜 20밖에 안잡아요?

👍 1 🗨️



보리사자 12 hours ago

속이 시원합니다!

👍 1 🗨️



보리사자 12 hours ago

속이 시원합니다!

👍 1 🗨️



박현명 14 hours ago

따봉!

👍 1 🗨️



까독 1 day ago

멋지시네요👍
역신 매울신 ♡신박사님!!
따끔한 일침으로 해결되길!

👍 1 🗨️



hayoun kim 1 day ago

못났다 종말~~~~~

👍 1 🗨️



유프로 1 day ago

스택!!

👍 1 🗨️



김영규 1 day ago

신박사님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죠 :)

👍 1 🗨️



안희정 1 day ago

이런게 스택이라는거군요?👍

👍 1 🗨️



star Ji 1 day ago

풀리면 뒤지시던가~~~ 용돌씨

👍 1 🗨️



빛나는별 1 day ago

줄꾸러기 모욕이 제일 신박사님을 화나게 한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제 판은 벌어졌고 다음은?



빛나는별 1 day ago

줄꾸러기 모욕이 제일 신박사님을 화나게 한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제 판은 벌어졌고 다음은?

👍 1 🗨️



태민승 1 day ago

백명이나 서평을 쓸까요?

서평 공유할때 무미건조 하게 공유해줬다고 핑계덜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책 거짓으로 좋다며 공유해선 안 되는거고요.
차라리 같은 방식으로 직접 해보고 성공하면 그 방식할 때 든 비용을 지급하겠다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 1 🗨️



Nam Tee 1 day ago

카아~~~👍👍👍

👍 1 🗨️



SEUNGWOO KIM 1 day ago

스택~👍

👍 1 🗨️



신박사 TV 1 day ago (edited)

내 친구 태웅이

태웅이랑 알고 지낸지도 이제 20년. 사실 태웅이의 성격은 나랑 많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룸메이트만 3년을 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2번 미국, 캐나다 여행도 같이 했다.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태웅이랑 나는 거의 한 몸 수준이다. 난 원래 장교로 군복무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태웅이가 기숙사에서 군대간다고 해서 따라갔었다.....우리는 삼성도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했고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런 태웅이가 우리회사의 CTO이다. 난 태웅이의 지적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언제나 운동, 게임, 시험 모든 것을 나보다 잘했다. 하지만 뽑으면서 학습량과 능력에 대해서 걱정했다. 내가 최대 주주로 있는 모든 회사는 평소에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독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태웅이는 원래 독서를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입사 후 정말 책을 열심히 읽는다. 너무 놀라웠고 고마웠다. 능력은 역시나 출중하다.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홍이사와의 관계. 홍이사는 내년 아니면 후년에 대표이사가 된다. 석희는 태웅이보다 6살이 어리다. 나이가 많다고 완장 차는 것은 내가 제일 혐오하는 문화다. 사실 경력면에서 태웅이가 석희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많다. 하지만 CEO로는 홍이사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석희의 리더십에 태웅이가 팔로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게 그릇의 크기이다. 너무 고맙고 또 고맙다. 난 은퇴를 할 때 태웅이랑 같이 할 것이다. 태웅이가 우리회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는지 모른다. 난 덕업일치를 한 최고의 행운아인데 거기에 베프가 가장 가까운 동료이다. 난 거의 모든 것을 얻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올바른 방법으로 반드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얻었는데 불필요한 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과잉이다. 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줄수 있

2020. 01. 19. 비아냥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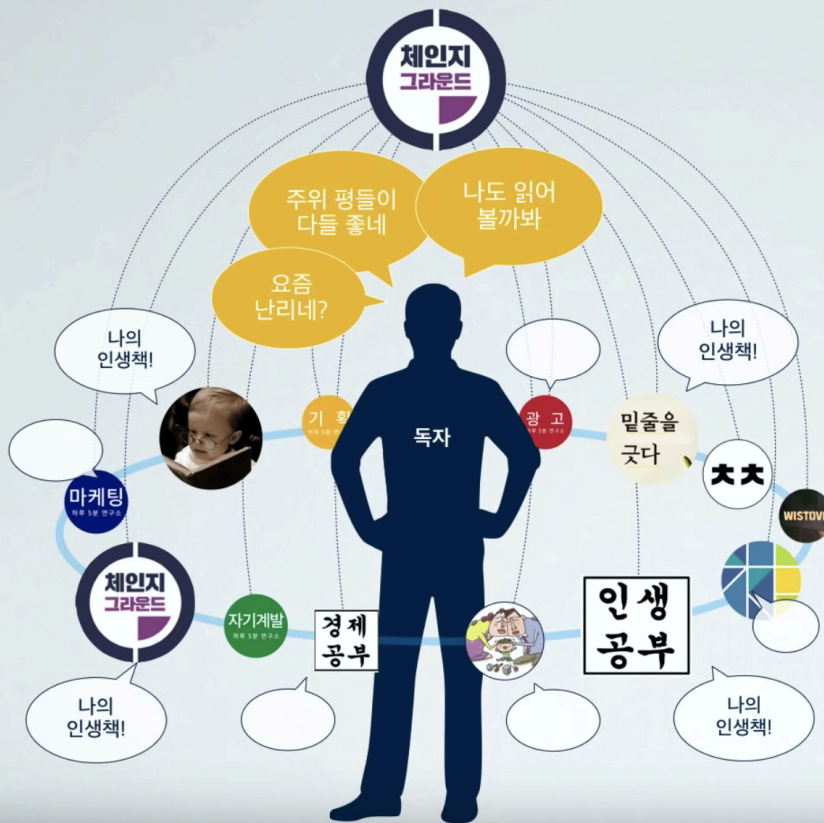
창욱이에게

제가 꼴통집단에서 이름을 외운 친구가 2명있습니다. 원석이랑 창욱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이미 망해서 폐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이 뭔지 몰라서 폐북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애가 밥먹고 폐북만 합니다. 괜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주면 1. 스타트업 전문가 용돌이에게 컨설팅을 받으세요. 2. 창욱아 작년에 로크 단행본만 매출만 90억이란다..... 최근 30일만 10억이고..... 내가 너는 그래도 사업을 했다는 용기가 있어서 직원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집중하라는 의미로 친히 언급해준다~

덧. 용돌이는 좋은 데이터 또 땡큐!!!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를 주셨음. 형이 또 나중에 설명해줄게~

2020. 01. 18. 긴급 브리핑 : 소비자를 기만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https://youtu.be/5MCHCa8jw-M>



소비자를 기만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신영준-고영성씨와 체인지 그라운드를
조사하게 된 간략한 역사

2020. 01. 18. 김용석씨의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eJjR885xsGE>)에 들어와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발언



신박사 TV 4 days ago

우와..... 이런 것도 돈 받고 가르쳐요??? 양심은 있는건가?????

38 1 REPLY

Hide 57 replies



토레스 4 days ago

ㅋㅋㅋㅋ 자신의무식함을탓하세요ㅋㅋㅋㅋ배우고좀사세요

10 1 REPLY



신박사 TV 4 days ago (edited)

@토레스 이거 돈주고 듣겠다는 당신보다는 똑똑한 듯 ㅋㅋㅋㅋㅋㅋ

8 1 REPLY



토레스 4 days ago

@신박사 TV 싸구려 강의만 들으니깐 강 싸구려로 사세요^^

8 1 REPLY



신박사 TV 4 days ago

@토레스 저는 mooc를 주로 애용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모자란듯.....

5 1 REPLY



가논이 4 days ago

@신박사 TV 여기 성지순례 찍어도 되나요? ㅋ

4 1 REPLY



신박사 TV 4 days ago

@토레스 coursera mooc 다 무료예요~ 아 가엽기도 하고.....ㅏㅏ

3 1 REPLY



토레스 4 days ago

ㅋㅋ 전 pwc 에서 컨설팅하고있는 회계사입니다.ㅋㅋㅋㅋㅋㅋ당신처럼 제가 싸구려 강의를필요가 없는입장이죠타ㅋㅋ제 가치는 제가 아니깐요ㅎㅎ

7 1 REPLY



토레스 4 days ago (edited)

@신박사 TVpwc는 들어봄?ㅋㅋㅋㅋㅋㅋ저도 대기업 실무자들에게 강의합니다.ㅎㅎ공짜강의듣고 가르치다간 목먹습니다.ㅎㄷ

8 1 REPLY



英美MUSIC 4 days ago

ㅋㅋㅋ신영준 재는 빅보카 네이버 사전 도용한건 한마디도 못하고 왜 저래? ㅋㅋㅋㅋㅋ 짤하네요

13 1 REPLY



英美MUSIC 4 days ago

ㅋㅋㅋ신영준 재는 빅보카 네이버 사전 도용한건 한마디도 못하고 왜 저래? ㅋㅋㅋㅋㅋ 짤네요

13 REPLY



신박사 TV 4 days ago (edited)

@토레스 pwc ㅋㅋㅋ 내 친구도 다님 ㅋㅋㅋㅋ 회계사..... 없어질 직업 1순위 ㅋㅋㅋㅋ 우리 인공지능 회사예요~~아 얼마나 내세울게 없었으면 자기가 오너인 회사도 아닌 다니는 회사를 자랑으로 했을까.... 진짜 회계사 맞음? 50만원에 16시간이야~ 시간당 3만원이야~ 무려 뇌피셜을~ 신박사 tv에서 용돌이 뇌피셜 데이터로 한 번 대차게 까줄테니까 구독고고! 바빠서 이만~ 넌 좋겠다~ 저런 강연 들을 시간도 있구 부러워~ ㅏㅏ

7 REPLY



英美MUSIC 4 days ago (edited)

신박사님께서 절 차단하셔서 제 댓글을 못 보시나보네요.^^ 그럼 여기 남겨야죠.

도서사기감사단은 빅보카가 네이버사전에서 70%이상을 복불한 걸 밝혀냈습니다.
빅보카를 펼치신 다음 빅보카의 단어 뜻을 네이버와 비교해보시면, 똑같은 걸 알수있으실 겁니다.

Read more

17 REPLY



英美MUSIC 4 days ago

가는이 네네ㅠ 다만 신박사님이 빅보카 단어뜻풀이를 네이버사전에서 73퍼센트 복불하신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ㅠ

14 REPLY



Jonghyoun Eun 3 days ago

@신박사 TV 인공지능 회사라면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는지요? 데이터과학/인공지능 연구자는 몇 분 있으세요? 더비 마썸이신가요?

16 REPLY



신신 3 days ago

신-고 관련 언론 보도 (2019. 6~12월, 최근순) #6개월에20건_한달평균3건_열흘에1건씩 기사남 ▶ "검증 안 된 건강 서적이 베스트셀러"(비즈니스한국, 19.12.20)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159> ▶ 로크미디어 "디자인연구소" 저작권취소 (독서신문, 19.12.03)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3> ▶ 체인지그라운드 "브런치 글" 논란 (독서신문, 19.11.19)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72> ▶ 新출판권력 "유투브셀러" (동아일보, 19.11.12)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2/98314447/1> ▶ 로크미디어와 체인지그라운드의 수상한 동행 (독서신문, 19.10.21)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81> ▶ 의심스러운 베스트셀러: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표표스스, 19.10.16)
- <https://ppss.kr/archives/205176> ▶ <일취월장> "짜깁기 논란" 직접 조사 (직설, 19.10.08) - <http://www.ziksir.com/ziksir/view/8903> ▶ 베스트셀러 어뷰징 (매경, 19.09.21)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9/751353/> ▶ "승률 100%" 베스트셀러의 비밀 (한겨레, 19.09.06)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0.html> ▶ 유투브가 뒤바꾸는 서점가 판도 (뉴스토마토, 19.09.06)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18408> ▶ "에디톨로지인가 짜깁기인가" (독서신문, 19.07.15)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34> ▶ 신영준은 왜 비난받나 (청지기뉴스, 19.07.13)
- <http://www.medianext.co.kr/m/view.php?idx=2820> ▶ MBC 보도 두번째 꼭지 (MBC, 19.07.11) - <https://youtu.be/YKWR6UWdj68> ▶ MBC 보도 첫번째 꼭지 (MBC, 19.07.11)
- <https://youtu.be/3wmDxcaoQk> ▶ 신영준, 윤지오 (ThePR, 19.07.02) -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9> ▶ "말 한마디로 천냥 빚" (조선, 19.06.29)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2356.html ▶ 원저작물 29% 인용 (서울, 19.06.26)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4010006> ▶ 넷드링킹 사태의 전말 (팟빵, 19.06.22) - <http://www.podbbang.com/ch/13120?e=23074377> ▶ 신영준, <일취월장> 베껴 쓴 (직설, 19.06.21) - <http://www.ziksir.com/ziksir/view/8320> ▶ 감동근, "왓슨 프로젝트" (뉴스톱, 19.06.17)



[00:09:00 -] 야 여기 들어가봐, 아까 채팅창에 000인가 XXX인가 있을거야 개 한번 들어왔나 봐 속 아까 지나갔는데. 여겼다. 000 애가 되게 꼴통이그든요. 여러분 000씨가 애가 되게 꼴통이예요. 열등감 엄청 심하신 분이고 애가 옛날에 고작가님 페이스북에서 차단 됐다가, 어 차단됐다가 저 고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저한테 풀었던 애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네 회사 인턴 기회를 신박사님한테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 좋은사람인가 했는데 근데 이사람이 뜬데다가 그 인턴 기회를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한 거야. 이용한거예요.

[00:10:00 -] 전형적인 씹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열등감 엄청 심하고 그냥 개 찌따예요. 예, 쪽팔리지 00아? 아 000 있어 그 찌따 있잖아, 니들은 다 병신 찌따야, 니들은 다 병신 찌따야, 그냥 야 가, 가 진짜 한 가하잖아 그니까 얼마나 한가해요 인간이. 지 자식 볼 생각은 안하고 그래 그래 그래 00아 왜 그러고 살아 니 자식을 돌봐. 상관없어요. 소송 걸라 그러세요. 이거봐 그짓말 하잖아 내가 차단했다가 페이스북에서 풀어줬는데 그니까 그거 기억도 못 해요. 고작가 이메일이 다 있는데, 어? 임마 이거봐, 인턴 기회준적 없다고 하잖아 말말말 막 바꾸는거야. 다 나오는거야 이거봐 팩트가 얼마나 찌따지. 김주현 팀장님 애 차단 시켜 주세요. 잘가요 찌따. 000인가 XXX인가 그 찌따 있어 개 차단하세요. 자 인제 2시 넘었죠? 요 문 닫고 아 개네가 여러분 저 모욕한 거 보고 있으면 개네 다 감옥가야돼. 괜챿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개네가 해준만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뽕독 잘 하셨어요? 애예요 애, 000, 팀장님 애 차단하셨어요? 000. 애 차단하시면 돼요. 애예요 애, 아직 안했네. 그니까 얼마나 찌냐해요. 채도 자식이 있그든요 주말이면은 지 자식 돌봐야 되잖아요. 그챿아요. 근데 이거 그냥 자기 그 낮은 열등감 채울라고 여기와서 악플 쓰고 싶은 거예요. 지잘못한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 할 거예요 왜 옛날에 나한테 차단당했었거든요. 예? 차단당했었고 열등감이 엄청 심한 애들이예요. 열등감이 엄청 심한 애들이어갓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서 지금 막 죽을 거 같을 거야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어?

2020. 01. 18. 뽕독라이브 - 명예훼손

[1:30:31] 그리고 약간의 이분이 어떤 사람이나면은 그리고 이분 아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로 보여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을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그림 보여 이렇게 체인 마케팅이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속고 있다고 보이게 퍼트리는 사람이 기자한테 제보도 하고 어 제보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웃겨. 이 사람이 여러분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캡처를 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줄꾸러기 여러분 뭐 체인지 그라운드 여러분 댓글 달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런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런대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소송거셔도 돼요. 줄꾸러기 여러분들은 소송 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막 귀 만지고 그러면 이거 거예요. 귀만지고 코만지면 댓글 단다. 우리가 무슨 채널을 갖고 있는 줄 아나 봐요.



2020. 01. 18. 뽕독라이브 - 도서사기감시단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 자기증언

[1:32:26] <고영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도서 감시단 뭐지 (신영준: 신영준 열폭단, 신영준 열폭단)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 중에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저희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신박사를 죽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는데 그들이 하는게 되게 어설프긴 어설프는 거 같아도 곰곰히 따지면 뭘하고 있냐면 생계를 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해서 생계를 끊으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있어요.그 사람들이 저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김용석 이분이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예요.

(신영준: 이유가 있어. 이유를 설명해드릴 거예요.) 속칭 이제 신영준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근데 애초에 피해를 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영준: 여기 계속 나한테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 타이런트에서 거기에 이제 하얀 장미 빨간 장미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준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저희는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 별로 데미지가 아예 없어요. 하는 일에 좀 귀찮을 뿐이긴 한데. (신영준: 깨알 마케팅 눈치챘어. 아이씨) 근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예요. 곰곰히 보면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싫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를 끊는 행위예요. 저희가 데미지가 없어서 그렇지 알고보면 누군가의 생계를 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영준: 이번에 자기가 페이스북을 인정을 했어 내가 기다렸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저희도 그 전에 뭐 저희가 아시겠죠 계정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근 교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그건 있어요.그런 분은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 분하고 평생 갈 거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있지만 한 8월 이후부터?



2020. 01. 16. 금전을 동원한 정치적인 압박 활동을 시사함

**Young Jun Shin**
16 January at 08:20 · 🌐

박원순이 아직도 서울 시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완벽한 현실 수준 반영이다. 난 민주당을 이번에도 뽑을 것이다. 그 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모자란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것이다. 난 진짜 제로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박원순이 어떤 선거를 출마해도 다음에는 꼭 "제로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지금 읽는 책인 "tyrant"는 그런 관점에서 탁월함을 넘어 경이롭다. 다음 주에 출간되는데 전국민이 읽었으면 좋겠다.



BLOTTER.NET
[CES2020]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한국관'
한국 스타트업은 많아졌고, 강해졌다. 하지만...

 81 8 comments 8 shares

 Like  Comment  Share

All comments ▾

 Write a comment...

**Jeong Yeun Kim** 난 민주당을 이번에도 뽑을 것이다. 예서 "난"은 다른 사람이 죠?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요^^
Like · Reply · 6d

 View 1 more reply

**Jeong Yeun Kim** 신영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지란 것은 맞지만, 그 반작용으로 현재 잘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이 착각할 텐데요. 국민이 쓸 수 있는 토포셋 전략은 선거 때마다 바뀌가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닐지요. 박원순이 싫으시면 모지라도 한국당 찍으시고, 다음에 다시 민주당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담컨대 이번에 민주당이 우세하면, 박원순은 제로페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할 겁니다.
Like · Reply · 5d · Edited

**Author**
Young Jun Shin Jeong Yeun Kim 경선에서 떨어야죠~ 그리고 이것은 토포셋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복아니라 자살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Like · Reply · 5d

**Author**
Young Jun Shin Jeong Yeun Kim 그리고 저는 저만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만약 제로페이보다 더 심한 짓을 한다면 제 돈을 써서라도 압박을 가할겁니다. 이걸 그냥 말이 아니라 제 오프라인 강연을 들은 수천명의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sns키보드 워리어가 아닙니다.  2
Like · Reply · 5d

**Author**
Young Jun Shin Jeong Yeun Kim 저입니다^^
Like · Reply · 6d

 Write a re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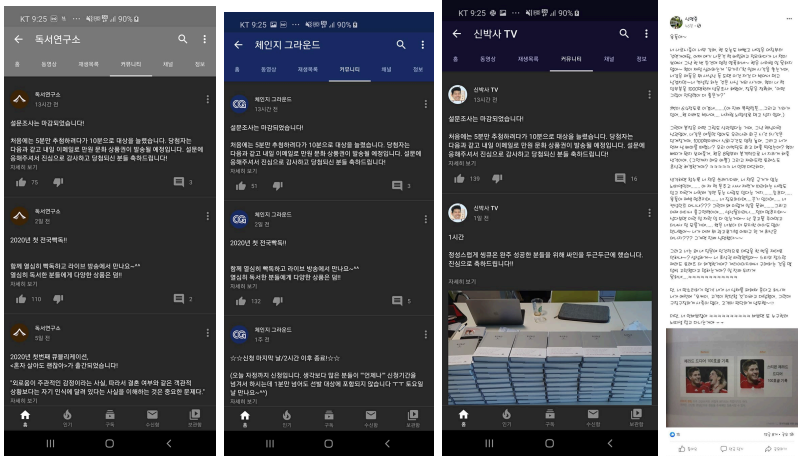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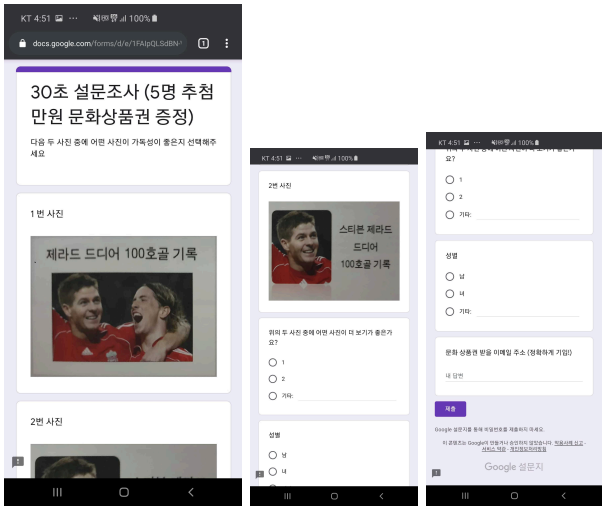
   

**조성운** 지식인의 글은 심오하네요^^ 심봉사는 말에 말을 믿고 눈이 떠 질 것을 믿고 있었겠지만...현실은 사기조!! 돌중 가장 피해자는 심청이~(국민)
Like · Reply · 6d

**장지영** 무효표는 안되나요;
Like · Reply · 6d

**JangHyun Kwon** 출마?
Like · Reply · 5d

2020. 01. 15. 법인 회사의 온라인 계정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자료수집



2020. 01. 15.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없이 무단 수집. (Youtube 전국빱독 공지)

KT 2:57 100%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eyo 4

전국빱독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또 다시 돌아온 전국구 빱독시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트릭스 허상에서 빠져나와 그것을 잘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있지만 오는 토요일에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빱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04-fiHiZ58&t=15s>

일시: 2020년 1월 18일 24시간 동안
방법: 안드로이드/iOS "포커스"앱을 켜고 90분이상 독서하고 "빱독"입력
방송: [2020년 1월 18일 오후2시부터 3시반 + a] 유튜브 신박사tv 라이브
해택:1. 사전 조사를 참여하시고 포커스에서 90분이상 독서하신 분 대상으로 50분 추천해 2만원 문화상품권 증정
2. 10분 추천을 통해 빱독 오프라인 행사 한 번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우대권 증정

함께 빱독 가자!

이름

내 답변

KT 2:57 100%

이름

내 답변

나이

내 답변

직업 혹은 경력 (인터뷰 요청할 수 있음, 인터뷰 성사될 경우 2만원 문화 상품권 증정)

내 답변

읽을 책

내 답변

전화번호 (인터뷰 요청할 수 있음)

내 답변

KT 2:57 100%

읽을 책

내 답변

전화번호 (인터뷰 요청할 수 있음)

내 답변

이메일 (당첨자 문화상품권 발송 정확히 기입!!)

내 답변

고민 및 궁금한 점

내 답변

제출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 설문지

2020. 01. 11.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100억을 벌자. 대중강연에서 위법행위 선동 및 조장. 전국빚독 강연중.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KT 9:30 55%

-크라우드 펀딩도 만들고
(이게 뭔지 몰라서 알아봤다. 크라우드 - 대중 과 펀드의
합성어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후원, 대출, 기부, 지분투자등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첫제품을 선
보일 때 활용한다고 한다. 아이디어 기술을 공개하고 투자
자를 모은다.)
-data 중심의 survey
(자세한건 아래링크로)

신뢰와 도덕보다는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것이
다. 기회는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만 간다.

플랫폼 구축관련하여, 열쇠가게 예를 들어주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한것인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플랫폼구축과 관련해서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여
적어본다.

예를 들어 열쇠가게가 여러개가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을 없앨것이다.

열쇠가게를 망라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면,
소비자는 그곳에서 열쇠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
는 투명해진다. 열쇠가게는 거기 등록을 할수 밖에 없다.
결국 플랫폼공급자만 돈받고 열쇠가게 사장님들은 어려워
진다.

0 0

III

O

<

Poll Result

누군가 100억을 주면 쓰레기를 대신 무단 투기
해줄 수 있다.

Yes

79% (3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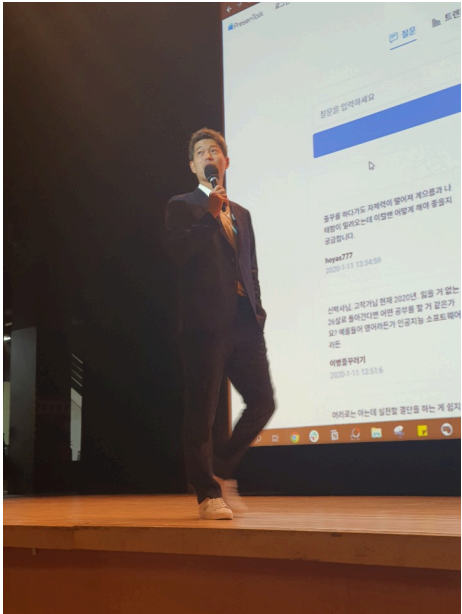
No

20% (90명)

각 질문마다 yes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라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000원 일때 no
100만원 일때 yes
100억 일때 yes

100억일 때조차 no라고 고른 사람에게도 뽕폭을 했다.
벌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기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역수에 따라 무단투기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진사회성'이라고 했고, 이어서 '진사회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나예겐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흥미로웠다.



2020. 01. 09. [기사] 베스트셀러 도서 사재기, 이렇게 이뤄진다 (독서신문)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49>

전 국민 독서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다
독서신문
Since 1970

≡ 전체 BOOK & 기획 BOOK & 마당 BOOK & 사람 BOOK & 문화 BOOK & 기관 오피니언 라이프

HOME > BOOK & 기획 >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다

음원 사재기만 문제?... 베스트셀러 도서 사재기, 이렇게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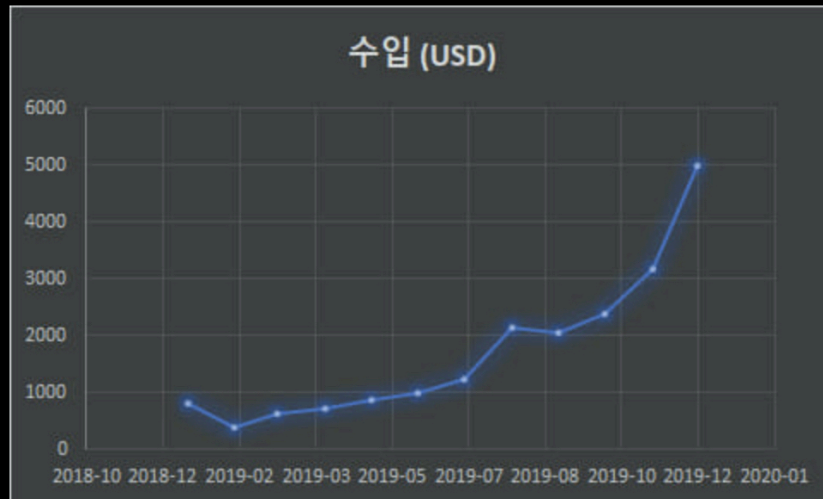
서민음 기자 | 승인 2020.01.09 09:09 | 댓글 0



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020. 01. 01. 신영준 본인이 오히려 도서사기감시단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발언



Young Jun Shin

· 1 January · 🌐



페이스북 수익

4000불 돌파를 예상했는데 거의 5000불에 육박했다. 다음 달도 5000불은 무난히 넘고 6000불 돌파까지 예상해본다. 여기서 나온 돈을 그대로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로 돌리면 내년 매출은 똑같은 게시물만 올려도 매출이 30~5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매출이 1억이 되면 2021년 매출은 1.5억이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게시물을 다시 올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4억도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영업이익 크기 자체는 작지만 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페이지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해도 유리한 구조가 된다. 이것을 functional connection이라고 한다. 우리같은 콘텐츠업자들에게 영업이익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매년 최소 단위 씨드 투자를 받는 것이라 똑같다. 이게 다 그 쓰레기들 덕분이다. 땡큐~♡

👍❤️😮 176

8 comments 15 shares

👍 Like

💬 Comment

➦ Share



Write a comment...

